

영화 '바울' 봐야 하나

부활과 순교 의미 왜곡해서 문제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을 그린 영화 '바울'이 지난 10월 31일 개봉되었다. 기독교 관련 매체인 국민일보,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바울' 영화는 현재 박스 오피스 7위이지만 상영되는 스크린 수에 비하면 매우 높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다며 기독교인들의 관람을 부추기고 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상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예수교의 전도자로 회심(回心)하기 전에는 바리새교인으로 서 예수교인들을 잡아 죽이며 핍박하였고, 회심 후에는 예수를 열렬히 전도하다가 결국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의 롤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재이다. 오늘날 깨어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썩었다고 한탄하며 과거 예수 시대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신앙과 전도 열정을 배우는 것은 한국 교회에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영화 '바울'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봐야 할 영화인지는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다.



영화 '바울'의 한 장면

신앙이 분명하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은 사람을 징계하거나 벌을 주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마시대에 예수교는 사이비종교이므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예수교인들이 산 채로 사자우리에 처되거나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는 등 끔찍하게 죽었다. 이렇게 예수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다시 오겠다고 예수는 요한이 죽기 전까지도 오지 않았고 - 이것으로 예수의 예언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있으며, 아니 못 올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림 또한 비과학적인 미신이기 때문이다.

바울, 순교와 부활 왜곡시킨 중죄인

바울은 예수의 부활신앙의 체계를 잡고 재림을 퍼뜨리다가 죽은 자이므로 바울로 말미암아 성경의 부활과 순교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중죄에 해당한다. 부활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므로 성경상의 부활을 육의 부활로 보면 커다란 오류에 빠지게 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육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다. 성경상의 부활은 영연히 영의 부활을 의미한다.

성경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므로 죽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부활한다는 무덤은 세상의 무덤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이 갇히는 영적인 무덤을 뜻한다. 영적 무덤이란 마음의 무덤이다. 마음의 무덤은, 공생명이 죽으면 무덤에 묻는 것처럼 죄가 생명을 해하므로 마음 속에 있는 죄를 가리킨다. 마음속의 죄는, 욕심 자존심 이기심이다. 죄가 나라는 의식이므로 나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영적 무덤이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영이 무덤 속이나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줄로 여기고 있지만 죽은 자의 영은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있다.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은 사람의 마음이므로 죽은 사람의 마음은 죽은 사람의 피다. 죽은 사람의 피는 살아 있는 후손의 핏속에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속의 피는 썩어지지 않는다. 피가 썩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죽으면 살아 있는 사람 즉 후손이나 형제 친척들에게 죽은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으므로 죽은 사람의 영은 살아 있는 후손과 형제 친척들 속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무덤이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일컬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마태 23:27)이라고 한 예수의 말은 이러한 의미에서 타당한 말이 된다.

따라서 성경적인 부활이란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무덤을 파하고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말한다.

순교는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속에 있는 옛사람의 영을 완전히 죽이는 것

순교 또한 자신의 믿음을 위해 육신이 죽는 것이 성경 상의 순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는 주체의식(영)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영을 완전히 죽인 자가 순교자이지 바울처럼 자신의 믿음을 위해 몸이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닌 것이다. 옛사람인 나라는 주체의 영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졌으므로 그가 순교자요, 마귀 영육에 갇힌 하나님의 영이 부활한 것이므로 그가 부활자이며, 마귀를 이긴 자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것이다. 따라서 순교자가 부활자요, 마귀를 이긴 이긴 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다.

따라서 마귀를 이긴 구세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순교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성경상의 순교를 육신의 순교로 왜곡함으로써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미덕으로 여기고 자신의 목숨을 잘못된 믿음을 위해 바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46) “마귀의 영은 차단(遮斷)의 영”

이긴자가 마귀의 영인 사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체(一體)의 영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마귀의 영은 한계가 있고 제한을 받는 차단(遮斷)의 영인고로 나와 너의 사이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일체의 영인고로 나와 너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인고로 온 우주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움직이게 되므로 이것이 곧 하늘나라요 천국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땅에 이긴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계, 차단(遮斷)의 세계가 없어지고 나와 너의 사이가 없어진다. 타인이 없으며 만물 또한 나무나 돌이나 흙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47) “하나님의 영은 일체(一體)의 영”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갈래갈래 찢어져 쇠, 구리, 납 등의 갖가지 물질로 분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영이 분열의 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일체(一體)의 영인고로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긴자가 철장으로 마귀의 영을 지리멸렬(支

離滅裂)시키므로 말미암아 온 천하를 하나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생각이 똑같아진다. 생각이 같으니 모습도 같아진다.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재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구세주의 옥중서신 전 세계 승리제단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백보좌 심판자로서 앞으로 심판할 큰 틀만 말하고자 한다. 승리제단 나오다가 떠난 자들은 영원히 승리제단에 못 들어온다.

배교자들의 비참한 말로

최고 아랫쪽 지옥 갈 자들은 이런 석 패와 거기서 갈라져 나온 김상규 패, 또 거기서 갈라져 나온 삼삼 패인 김옥자 패들이다. 다음은 정도령을 김옥자 패들이다. 이 자들은 마지막 때에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꺼지지 않는 유희불 못에서 펄펄 뛰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들의 가족은 물론이요, 친척과 사돈의 팔촌까지 구원과는 상관없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나은 뻔한 자들로 저들의 탄식은 영원무궁토록 울부짖게 되어 있다.

을 먹지 않고 이슬성신만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

남자·여자가 없어지고, 시집가고 장가는 일이 없어지고, 어린아이를 낳는 일이 없어지고, 죽는 일도 없어지고, 사람이 늙는 일도 없어지고, 병걸리는 일도 없어지고, 여름·겨울이 없어지고, 항상 불 날씨와 같고, 밤이 없어지고, 항상 낮과 같이 밝은 세상에 살게 된다. 태양빛이 어두워지고,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비치는데 곡선 광선인고로 그들이 없고, 쥐구멍에도 빛이 비치게 되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다.

주님의 분신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

십일조를 안 바치고 그 달 그달 수입을 전부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이다.

각 제단의 지역장과 구역장들은 식구들의 서명된 숫자를 개인별로 기록하고, 전도한 명단과 주소 및 전화 번호를 기록한 장부를 소지하되 각 제단별로도 장부를 비치토록 하라. 제단에서 발행하는 책 천 권을 인쇄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을 꼭 인쇄해서 넣도록 하라. 이미 발간된 책도 이 말을 인쇄해서 책 뒷편에 풀을 발라 붙이도록 하라.

이 역사는 절대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국적으로 지지 공문을 발송토록 하라. 나의 분신이 우리 제단 식구들과 항상 함께하고 일거수일투족, 마음 움직이는 것까지 감지하고 있으니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여야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 식구들에게 알려라.

나의 분신이 온 우주에 꼭 차 있어 우주에 꼭 차있는 마귀를 일 초 동안 살 양식인 것이다. 앞으로 세상 양식

승리제단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 사람과 전도하여 열매 맺은 수가 많을수록 면류관에 별이 많이 달리고 영광의 빛이 많이 비치게 되어 있다. 서명 천 명 받은 자는 1명 전도한 것으로 친다. 열 명 이상 전도한 사람은 왕의 반열에 선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여 가로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내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는 기록이 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살게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참 구세주가 내려주는 이슬성신이 인류가 영원무궁토록 먹고 살 양식인 것이다. 앞으로 세상 양식

윤금옥 사

미주신경과 장생비결

백희, 슬픔과 관련이 있는 미주신경이 장생(長生)과 아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 마음을 갖고 생활할 때 몸에 활력이 생기며 젊어지고, 피부가 고와지고, 면역력이 강한 침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싸움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남을 욕하고 헐뜯는 말이 하는 생활을 하면 미주신경은 퇴화되고 차단되어 생명력이 점점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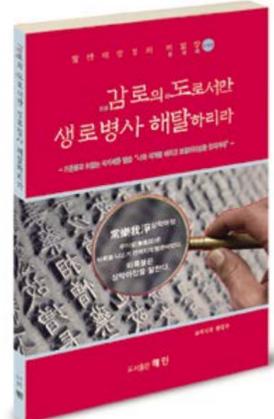
구세주께서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말 속에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헐뜯고 미워하는 것은 헐뜯는 본인과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과 헐뜯는 대상자가 피해를 보게 되므로 3배로 피해자가 불어나는 것이니 더욱 안 좋은 것이라 말씀 합니다. 사람마다 생활 습관 패턴이 있는데,

자신의 판단영역에 절대 불가침 영역을 설정하여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일단 반대를 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 사람, 항상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말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을 토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 항상 자신의 한 일에 칭찬을 받고 확인하려는 사람 등등의 행동 패턴을 갖고 있으나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상대의 단점을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된 나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을 멈추고 나를 버리는 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단점을 제거해 나가면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점점 영생체로 화해가는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나를 버리며,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 서로에게 따뜻하게 배려하며 행복한 말을 나눌 수 있을 때 깨우침의 영역도 넓어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행복의 전도자가 되지 않을까요.*

윤금옥 사

새책이 나왔습니다!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판매 중



저자 석후담 스님 * 승리신문 편집부
정가 15,800원 * 도서출판 해인

팔만 대장경의 비밀 장수편

甘露 감로의 도로서만 생로병사 해탈하라

기존불교를 뒤엎는
석가세존의 말씀,

“나와 석가를 버리고
보살마하살을 찾아가라”

3000년 만에 해독되는 ‘이자삼점’

열반경만 왜 유독 비밀장(秘密藏)이라고 했을까?

불교계는 왜 열반경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는가!

- 열반경 상 보살마하살은 석가를 지칭하지 않는다.
- 불법승 삼보는 진삼보(眞三寶)가 아니다.
- 석가세존은 열반에 들지 못했다.
- 석가세존은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를 설하지 못했다.